

소확행·심쿵 약속...대선주자들 생활밀착형 공약 쏟아내

〈이재명〉

〈윤석열〉

2030 젊은 층·중도층 표심잡기 이, 탈모치료 건보 적용 등 51개 윤, 첫 발표 이후 하루 1건씩 발표 포플리즘 양상, 취지 무색 목소리도

대통령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여야각당의 생활밀착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의 선택이 중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치현 현실적인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석열 씨의 심쿵 약속'을 각각 시리즈로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다들 그 취지가 내용은 엇비슷하다. 이 후보의 1호 소확행 공약은 '오토바이 소음감절', 윤 후보의 1호 심쿵 공약은 '택시 운전석 칸막이 설치'였다.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각론'에 해당하는 분야별 공약이 주를 이룬다. 거대 담론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 현안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선일에 다가설수록 점차 표를 의식한 '표플리즘 경쟁' 양상으로 흐르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현재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소확행 공약은 51개에 달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해 11월 첫 발표 당시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정책, 오랜 사회적 문제였으나 해결이 요원했던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놓겠다는 취지"라

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탈모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이를 '소확행'의 일환으로 포함, 현재는 분야 등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두루 아이디어를 받은 뒤 공약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최근에는 공보단을 중심으로 한 '소복소복' (소시민의 행복-소소한 행복) 발표도 시작했다. 대변인이 주로 발표하는 '소복소복' 시리즈는 이 후보가 이미 발표한 정책 중 여성과 가족, 보육과 취업 등 '일상'에 보다 초점을 맞추자는 기획으로, 지난 17일 부모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는 상환 학자금 제도 운용과 대상 확대, 공공부문 면접 수단 지급 의무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8번째 발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경기지사 시절 자신이 이행했던 정책을 소개하는 '명확행'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부동산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무한책임 부동산' 등의 콘셉트를 추가 개발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도 미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심쿵 공약'은 현재 17번째까지 나왔다. 대기업이 제휴한 콘도 시설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하면 이를 대기업의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 등이다.

심쿵 시리즈의 시작은 지난 2일이었다. 주말을 제외하면 첫 발표 이후 사실상 1일 1건을 발표한 셈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후보가 공약을 통해서라도 한번 한번씩 인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내 삶, 내 가족과 이어지는 생활 공약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8일부터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 출연하는 '59초 쇼츠(shorts)' 공약 영상 발표도

시작했다. 이 역시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체육시설 소득공제, 자궁경부암 백신 보험 적용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주요 내용인데, 영상 미디어에 친숙한 2030세대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집중하는 게 특징이다. 영상마다 마지막에 등장한 윤 후보가 아랫배를 쓸어내리며 사회적 광고를 패러디한 듯한 연기를 하거나 "(공약을) 후보님께 보고할까요?"라는 말에 "좋아! 빠르게 가"라고 외치는 모습도 화제를 모았다. 현재까지 총 14편이 공개됐다.

이런 '마이크로 타기팅' 경쟁은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중도층과 2030 세대를 집중공략해야 하는 이번 대선 구도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번 대선의 특성상 미니 공약이 중도층에게 효능감 있게 다가가는 것 같다"며 "중도를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공약 발표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경제, 복지 등 현안들은 결국 (이념 성향과) 같이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작은 이야기'로 돌려버리는 것"이라며 "당장 지지를 끌어오고 싶은 특정 그룹에 마치 표를 주면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식으로 공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테마거리에서 열린 '태터버스 수원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을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검찰 공화국 무섭다...지면 없는 죄 만들어 감옥 갈 듯"

서울 즉석연설서 윤석열 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송파구 석촌호수 옆길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기득권하고 부딪혔고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두렵다. 지금 검찰은 있는 죄

도 없애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가리켜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 누가 그랬나"라고 되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서 '아, 나는 죄짓지 않았지만 살아남 길이 없구나' 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나온다"면서 "왜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다. 언론에 공무원에 기업에 다 숨어 있다"며 "그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공정하게 하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던 자신들의 이익, 지위가 위협해져서 공정한 세상, 투명한 세상이 싫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 후보를 겨냥해 "무능한 운수에 맡기지 말고 유능한 리더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자"라며 "주사위를 던지고 누군가에게 가해하는 주술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특정 세력, 특정 소수, 특정인을 위한 정치는 배격해야 한다"면서 "비록 홍준표, 윤석열이 주장해도 좋은 정책을 받아 쓰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선관위, 6·1 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 공고

광주시장·교육감 6억6600만원

전남지사·교육감 13억 2300만원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최근 선정·공고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시장·교육감선거는 각각 6억66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정장선거가 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정장선거 2억200만원, 서구정장선거 1

억7500만원, 남구정장선거 1억5800만원, 동구정장선거 1억3100만원 순이다. 지역 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20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의원선거는 1억1800만원이다. 또, 지역구·비례대표의원선거는 각각 4485만원과 5280만원 안팎이다.

전남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3억 23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주시장선거가 1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 선거로 1억 9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2600만원가량이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평균 46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39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 39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100만원 수준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인구수, 읍·면·동수와 정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후보자들이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지급한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받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다자대결 이재명 34%·윤석열 32.5%

서던포스트 조사...안철수 10.7%

KSOI 조사...尹 43.8% 李 3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차 범위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잇따라 나왔다.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34.0%, 윤 후보의 지지율은 32.5%를 기록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1주일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1.0%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0.7%를 기록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1%포인트 오른 2.2%로 집계됐다. 이른바 '이대남-이대녀'의 지지 분포를 보면, 20대 남성의 경우 이 후보 지지율이 12.7%, 윤 후보 지지율이 41.8%였다. 20대 여성은 이 후보가 21.2%, 윤 후보가 18.6%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같은 21~22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3.8%로 이 후보(33.8%)에 10%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전주보다 윤 후보는 2.4%포인트 오르고 이 후보는 2.4%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안 후보가 2%포인트 상승한 11.6%, 심 후보가 2.4%로 뒤를 이었다.

윤 후보는 여성 지지율이 41.8%로 전주보다 4.8%포인트 올랐으나, 이 후보는 31.5%로 4.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 중도층에서도 윤 후보는 5.1%포인트 상승해 45.8%를 기록했으나 이 후보는 4.1%포인트 하락한 28.9%로 나타났다.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서던포스트 조사는 전화 면접(무선 100%)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0.0%다. KSOI 조사의 100% 무선 휴대전화 자동응답 전화 조사(ARS)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